

Sunoco, 페놀 생산능력 대폭 감축

Haverhill 3억5000만파운드 가동중단 ... 가격인상 성공은 미지수

Sunoco Chemicals이 오하이오주 Haverhill 소재 페놀(Phenol) 3억5000만파운드 플랜트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Haverhill 소재 나머지 2개 페놀 플랜트 및 펜실베이니아주 Frankford 소재 2개 생산라인의 가동률을 상승시킬 계획이다.

Sunoco는 Haverhill 플랜트 가동중단 이후에도 미국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18억파운드 페놀 플랜트는 남겨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Sunoco는 2001년 Aristech를 인수함으로써 Haverhill 플랜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Aniline 플랜트에 페놀을 공급했다. Aniline 플랜트는 2002년 가동이 중단됐다.

Sunoco는 시장여건에 따라 Haverhill 플랜트를 재가동할 계획이나 최소 2년 동안은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Haverhill에 남은 2개 페놀 플랜트의 생산능력은 총 7억파운드에 달하며 Frankford 플랜트의 생산능력은 총 11억달러로 Frankford 생산량 약 7억5000만파운드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Honeywell에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Haverhill 소재 페놀 플랜트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페놀시장이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에 있어 생산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페놀 생산기업들은 3/4분기 가격은 파운드당 3센트 인상을 추진했으나 수요기업들의 저항에 부딪혀 페놀 가격은 41-43센트대에 머물러 있다.

또 불안정한 벤젠가격으로 페놀 가격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벤젠 계약가격은 11월 깎던당 1.40달러로 전월대비 11.00센트 하락한 반면, 미국 Spot 가격은 원유 가격상승 및 아시아 수요강세로 1.40달러에서 1.55달러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벤젠 공급기업들은 12월 계약가격을 1.55달러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1.50달러를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페놀 생산기업들은 벤젠 코스트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벤젠 가격이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페놀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30>